

DISCORSO DEL SANTO PADRE SULLE ARMI NUCLEARI

## 핵무기에 관련한 교황의 권고(가르침)

-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2019년 11월 24일(일)

번역 : 지성용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미칠 수 있는 고통과 공포를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나가사키 성당에서 최근에 발견된 손상된 십자가와 성모상은 원폭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희생된 가족들의 공포를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갈망 중 하나는 안전, 평화 그리고 안정입니다.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이러한 인류의 바람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가지려는 자들은 항상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두려움과 불신의 정신으로 지탱된 잘못된 안전감을 통해 안정과 평화를 지키려는 왜곡된 이분법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는 결국 사람들 관계의 해악으로 끝나고 어떤 형태의 대화도 방해합니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은 상호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멸의 위협에 기반을 둔 시도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현재와 미래의 온 인류 가족에 대한 상호 의존과 공동의 책임에 의해 형성된 미래를 향한 세계적 연대와 협력윤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 공격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은 인류애와, 환경적 결과를 목격한 이 도시에서 무기 경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기 경쟁은 귀중한 자원, 곧 사람들의 보다 완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잘 사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합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세

---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해 11월,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문 전문을 천주교 인천교구 지성용 신부가 번역한 것이다. 천주교회가 핵무기에 대해 어떠한 유보도 없이 전면 폐기되어야 함을 강조한 이 연설은 핵금지조약(TPNW)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지성용 신부의 도움을 받아 연설문 전문을 싣는다.

상에서 낭비되는 돈과 더 파괴적인 무기의 제조, 업그레이드, 유지 및 판매를 통해 얻은 재산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세계를 수백만의 남녀가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종교 공동체 및 시민 사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군사 및 민간 부문, 국제기구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핵무기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현재 불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힘들지만 꾸준한 노력에서 영감을 얻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1963년, 요한 23세 교황님은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원자력 무기 금지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지상의 평화, 제112항), 정통하고 지속적인 국제 평화는 군사력의 균형에 놓일 수는 없지만 상호 신뢰에 의해서만 (지상의 평화 제113항)가능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국제 무기 통제 체계의 해체라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불신의 분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비약하고 있는 군사 기술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다국 간의 공동 정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의 국제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도자들의 긴급한 관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과 국가 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느님과 세상의 모든 남녀들에게 묶여 있다고 느끼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포함하여 핵무장 해제 및 비확산의 주요 국제법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7월, 일본 주교들은 핵무기에 대한 항의를 시작했으며, 매년 8월 일본 교회는 평화를 위한 10일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도와 대화를 지지하는 끊임없는 노력, 대화에 대한 고집이 진정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정의와 연대의 세계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대한 신뢰와 영감을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면서 우리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무기들이 우리를 국가 및 국제 안보에 대한 현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특히 인도주의적, 환경적 관점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러한 문제에 배치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며, 핵선언에 의해 조성된 두려움, 불신 및 적대적인 분위기가 높아지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지구의 현재 상황은 복잡하고 어려운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를 위해 통합적인 인간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이러한 인류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

다. 바오로 6세 교황은 1964년에 세계 군사 비용에서 부분적으로 차감된 돈으로 세계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제기금’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Discorso ai giornalisti, Mumbai, 4 dicembre 1964; Enc. Populorum progressio, 26 marzo 1967, 51)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상호 간의 신뢰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을 요구하며,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는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심과 도전이 되는 과제입니다. 오늘날 양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화할 수 없는 문화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나는 마음의 회개와 삶의 문화, 화해와 형제애의 승리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형제애는 공동운명에 대한 모색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일부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우리를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기억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신뢰로 돌아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다 효과적인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청해야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이 나라 전체가 번영의 축복과 사회적 조화를 알아 나가기 바랍니다! 